목포시민 1인당 지방세 28만원 납부

市, 지난해 자체 수입 2천 8백억원 달해
행안부 "지방채무 잔액 징수 미흡" 평가

목포시민들은 지난해 1인당 27만9천489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자체 수입은 2천807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세는 68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세입구조와 세출·재정관리 등에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추경예산 편성 반영비율과 지방채무 잔액징수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목포시 재정진단결과 밝혀진 것으로 세외수입, 세출관리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진단 결과 목포시는 ▲지방세 수 안정화를 위한 세외수입 세원의 발굴 ▲체납 지방세 회수에 적극적인 노력 ▲연말지출 비율,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정확히 예측해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시의 지난해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 부문(살림 규모)을 보면 7천179억 원을 징수해 전년도 징수액(7천926억 원)보다 747억원이 줄었다.

세출결산에서는 당초 예산액(7천237억원)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5천318억원(73.4%)으로, 2006년 지출액(5천20억원)보다 298억원이 증가했다.

유달 장학기금(13억 원), 중소기업 발전기금(71억 원) 등 10개 기금의 운용액은 168억원으로 지난해(153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평화광장 갈치 낚시 불야성

본격적인 갈치낚시 시즌에 접어들면서 목포시 평화광장 앞 바닷가에 낚시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달 3·4일 '목포바다 은빛갈치 축제'를 개최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무안경찰, 물품 400여점 '아름다운 가게' 기증

무안경찰서(서장 민갑룡)가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전 직원들이 모은 생활용품 등 400여 점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의 설립이념인 '나눔과 순환'에 동의하는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용품을 기증, 토요일에 특별판매하는 행사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신안 섬 학교 4곳에 다목적 강당 신축

신안군 섬 지역 초·중학교 4곳에 다목적 강당이 건립된다.

신안군과 신안군교육청은 지난 16일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팔금초교와 자은중, 암태중, 흑산중 4곳에 체육활동과 급식 등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을 신축키로 합의했다.

사업비 46억5천여만원 가운데 신안군이 22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한다.

신안지역 학교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사실상 민간자본유치(BTL)에 의한 다목적 강당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키로 해 강당 건립이 가능케 됐다.

신안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다목적 강당이 건립되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높은 일교차…양식새우 스트레스 '요주의'

최근 전남 서해안 해역의 바다 온도가 높아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양식새우에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 수산과학원 목포 수산사무소는 최근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양식장의 새우는 수온 일교차가 심할 경우 일시적인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환경관리와 먹이 공급량 조절 등 세심한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무분별한 약품사용을 자제하고, 수산사무소의 어류질병 담당자 등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품 사용과 수산용 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수온 하강기에는 양식장 수심을 2m 이상 유지시켜 갑작스런 수온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올 추석 서남해 뱃길 귀성객 4%↓

연륙·연도교 개통 영향…도선 이용객은 78% 감소

올해 추석 기간 동안 서남해 뱃길 귀성객이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인 지난 12일부터 5일간 여객선을 이용해 서남해 도서지역을 찾은 귀성객은 14만 2천726명으로 지난해 추석(14만 8천629명)에 비해 4% 감소했다.

귀성객이 감소한 것은 해상 기상은 양호했으나 추석 연휴가 3일로 짧았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분석했다.

항로별 이용객을 보면 군산지역이 5개 항로에 9천208명으로 작년 추석보다 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고 목포지역 22 항로 7만 9천994명, 완도지역 12항로 4만 3천627명으로 각각 4% 줄어들었다.

도선 이용객은 연륙, 연도교 개통에 따른 폐업 선박 증가로 78% 감소한 4천807명에 그쳤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연휴 기간 지방청 및 관내 4개 해양경찰서에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실시간 운항상황 파악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농협 목포유통센터 "추석장사 잘했네"

특판행사 64억 매출 올려…실적 평가 전국 1위

지역경제 상황 악화와 짧은 연휴 등에도 불구하고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조성수)의 추석 매출이 43% 증가했다.

목포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추석 특별 판매행사를 통해 64억원의 매출을 올려 개장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특판행사에 비해 43% 늘어난 것으로 농협중앙회 유통사업장 간 추석 특판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도 안았다.

특히 광주·전남 중소형 하나로마트에 12억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햅쌀 판매량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추석 특판행사 기간 도매 실적도 60% 신장했다.

이번 추석 판촉 기간동안 인기를 끈 품목은 과일, 건어물 선물세트를 비롯해 가공식품 및 생필품 선물세트 등 2만~3만원대의 실속형 상품과 정육, 홍삼, 굴비 등 10만~15만원대의 고가선물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도개 홍보관' 생긴다

진도군 사업비 12억 투입
3층 규모 내년 1월 완공

진도에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진도개 홍보관'이 건립된다.

진도군은 진도읍 동외리 '진도개축산사업소' 사업장 옆에 전체면적 744㎡, 지상 3층 규모의 '진도개 홍보관'을 내년 1월초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국비와 군비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될 홍보관에는 진돗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실과 사무실,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홍보관이 건립되면 진돗개 홍보는 물론 혈통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진돗개는 충직성과 청결성, 단아한 품성으로 세계 애견가들로부터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5년 5월 영국켄넬클럽(KC),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안 '튤립 축제' 연계 공예품 40여점 개발

신안군이 '튤립 축제'와 연계한 관광문화 상품으로 공예품을 개발했다.

개발 상품은 튤립을 이용한 천연염색 제품과 튤립 이미지를 활용한 크리스탈 공예, 색 점토 공예 및 도자기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 40여 종에 달한다.

신안군은 상품 품평회를 열어 품질과 디자인 등을 보완한 뒤 내년 4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 2회 튤립축제' 기간 동안 공예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목 포	(061)276-9200	나주시	(061)332-5544
여 수	(061)653-8444	강 진	(061)434-6830	나주군	(061)332-7764
광 양	(061)792-8111	무 안	(061)452-8535	담 양	(061)383-8111
순 천	(061)746-8111	신 안	(061)243-3758	영 암	(061)473-2340
고 흥	(061)842-2121	완 도	(061)554-6677	장 성	(061)392-2100
구 례	(061)783-8111	영 광	(061)351-0055	장 흥	(061)863-8822
곡 성	(061)362-8111	진 도	(061)543-0100	화 순	(061)374-4423
보 성	(061)853-1190	함 평	(061)324-8111	광 산	(062)944-0444
		해 남	(061)534-5151		